

# 錄 取 書

녹 음 일 시	2014년 4월 16일 9시 15분 ~ 11시 58분
녹 음 장 소	해양경찰청 경비전화(2242)
대 화 자	본문 기재
녹 취 분 량	표지 外 51쪽

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

2016년 4월 19일

속기법인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 264-81-30602)

속기사 林鍾憲 (印)

(자격번호 : 06-G2-000008)

- ▶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 장소 및 대화자,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
- ▶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
- ▶ '\*\*\*'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

◆ 녹음 순번 : #0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5분 46초

◆ 대 화 자 : 목포서 상황실 / 본청 상황실 부실장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목포 해양상황실입니다.

남자 2 : 예. 본청 부실장입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세월호 뭐 지금,

남자 1 : 예. 지금 침몰 좌현 기울었다 해가지고요.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남자 2 : 아, 실제 침몰인가요? 지금 보니까 18노트로 나와 있어서.

남자 1 : 그러니까요. 저희 여기 AIS는 그렇게 찍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기울었다고 하네  
요. 예.

남자 2 : 기울었다고요?

남자 1 : 예. 기울고 침몰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남자 2 : 123정인가?

남자 1 : 예. 123정 출발했습니다, 이미.

남자 2 : 아, 그래요?

남자 1 : 예. 그리고 헬기 요청도 하고요.

예. 잠시만요.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0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9분 16초

◆ 대 화 자 : 본청 수색구조과 구정현 / 본청 상황실 부실장

구정현 : 대신 받았습니다. 재난대응계 구정현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상황실인데요. 부실장입니다.

구정현 : 예, 안녕하십니까?

남자 1 : 지금 목포 관매도 부근에 여객선 지금 침몰 중이라는 게 지금 나왔거든요.

구정현 : 관매도 쪽에 여객선 침몰이요?

남자 1 : 예, 예.

구정현 : 오늘이요?

남자 1 : 350명 탔다고 하거든요, 여객선인데.

구정현 : 예.

남자 1 : 예. 수색구조과도 여기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현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0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2분 5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국정원 국정상황실 황성훈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정원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온 황성훈 경위입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지금 언론에 보니까 여객선 조난신고 들어왔다던데, 그 상황 혹시 뭐 만들어진 거 있나요?

남자 1 : 지금 그거 때문에 우리 엄청 바쁘거든요. 이제 접수 받아서.

남자 2 : 아, 그래요? 아직 보고서는 만든 건 없고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어떤 상황인지 대략,

남자 1 : 여객선인데 침수 중에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남자 2 : 아, 아직 현장에 출동되지는 않았죠?

남자 1 : 지금 가고 있죠, 거기에.

남자 2 : 가고 있죠?

남자 1 : 예.

남자 2 : 보고서 만들어지면 팩스 좀 부탁드립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예. 수고하십시오.







◆ 녹음 순번 : #0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3분 4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국정원 상황실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국정원 상황실인데요.

남자 1 : 예.

남자 2 : 그 연합뉴스 보고 지금 전화 드렸는데.

남자 1 : 예, 예.

남자 2 : 그게 추가 진전된 거 뭐 있습니까?

남자 1 : 그거 지금 신고 들어와가지고 목포하고 완도 거기서 인근 함정 지금 그쪽으로 하고 헬기도 좀 띄우고 그렇게 했어요.

남자 2 : 아, 현재 지금 신고만 접수된 상태라는 말이죠?

남자 1 : 예. 그랬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배하고 그다음에 최인근 우리 함정하고 해군 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자 2 : 우리나라 거예요?

남자 1 : 우리나라 내항 여객선이네요.

남자 2 : 아~ 예.

남자 1 : 6,600톤짜리.

남자 2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예.



◆ 녹음 순번 : #0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4분 35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인데요.

남자 1 : 중앙 어디요?

남자 2 : 119구조본부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중앙119요.

남자 1 : 예.

남자 2 : 혹시 바쁘신데 죄송한데 지금 뉴스속보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남자 1 : 아, 예.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요, 인근 합정이. 지금 아직 현장은 도착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남자 2 : 이게 뭐 무슨 사고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남자 1 : 일단은 침수가 됐다가 지금 침몰 위기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날씨도 좋고 인근 합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서 구조를 해야죠.

남자 2 : 아,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0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0분 4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중앙119구조본부

남자 1 : 예.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중앙119구조본부인데요.

남자 1 : 예.

남자 2 : 예. 바쁘신데 죄송한데,

남자 1 : 저기요. 아직 아까 말한 대로 똑같고, 지금 보고서 나갈 거니까요, 그쪽으로도  
하나 보내줄게요.

남자 2 : 예. 아, 혹시 또 뭐 좀 지원사항이 필요하신가 해서요. 헬기,

남자 1 : 아, 그거는 저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쪽에?

남자 2 : 저희는 가능하기는 하죠.

남자 1 : 예. 그래요?

남자 2 : 예.

남자 1 : 일단 알겠습니다.

남자 2 :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0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1분 3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청와대 경호상황실 치안반장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안녕하십니까? 경호상황실 치안반장입니다.

남자 1 : 어디요?

남자 2 : 청와대 경호상황실 치안반장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객선 침몰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남자 1 : 예.

남자 2 :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남자 1 : 지금 현장 이동 중이고요.

남자 2 : 아, 이제 이동하고 있나요?

남자 1 : 예, 이동 중에 있고, 한 10마일 떨어져가지고요. 이동 중에 있고, 지금 관련해가  
지고 대외전파 할 거예요. 현재 지금 구조사항은 없습니다.

남자 2 : 아, 그러면 따로 뭐 \*\*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예.







◆ 녹음 순번 : #0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4분 5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남자 2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아, 예.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1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6분 4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안전행정부 상황실 사무관 신정택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안행부 상황실의 신정택 사무관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이번에 지금 그 여객선이 해경청이 어디 관할이에요, 지역이?

남자 1 : 목포입니다, 목포.

남자 2 : 목포?

남자 1 : 예, 예.

남자 2 : 그러면 목포 거기 해경청장님 혹시 직통전화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자 1 : 어디 말입니까?

남자 2 : 목포청장. 해경청장.

남자 1 : 목포해경청장이요? 목포해경서장님 말인가?

남자 2 : 해경서장?

남자 1 : 예.

남자 2 : 예. 그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장관님께서 전화 좀 하신다는데.

남자 1 : 아, 그러세요?

남자 2 : 예.

남자 1 : 잠시만요.

남자 2 : 예.

남자 1 : 예. 여보세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휴대폰이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아... 010-3162-0077. 개인 휴대폰은 원래 잘 안 가르쳐 줘서요. \*\*

남자 2 : 아, 서장님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남자 1 : 김문홍 목포해경서장님이십니다.

남자 2 : 김문홍?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아, 예, 고맙습니다.

남자 1 : 전화를 하시더라도요. 아마 저기... 아, 거기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실에  
있을 것 같은데. 목포 상황실에, 해경 상황실에. 지금 이 사건 있어가지고.

남자 2 :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1 : 예, 예.





◆ 녹음 순번 : #1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2분 2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고생해요. 치안정책관인데요.

남자 1 : 예.

남자 2 : 자꾸 문의가 와서.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지금 상황이 어떤가? 침수 중이라고만 나오는 것 같은데. 침몰 우려는 있나요?

남자 1 : 지금 침몰 우려가 있어가지고,

남자 2 : 아, 그래요?

남자 1 : 현재 100톤이, 지금 123정이 100톤이 현장 도착했고요. 현장에 헬기 펜더 2대가  
현장에 있습니다.

남자 2 : 아, 그러면 지금 기상은 어떤가요?

남자 1 : 현재 기상은 지금 보니까 양호하고요. 안개가 좀 있고 파고는 높지 않습니다.

남자 2 : 아,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남자 1 : 일단은 처음에 발생이 침수가 됐다가 아마 침수가 많이 되니까 기울어지면서 침  
몰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진행상황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남자 2 : 기상은 지금 파도는 별로 없네요.

남자 1 : 예, 예. 파도는,

남자 2 : 그러면 구명벌이나 이거 타고 내리면 천천히 내리면 크게 문제없을 수 있겠네



요?

남자 1 : 예. 지금 인근 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남자 2 : 구조는 뭐 문제없겠네요. 그렇죠?

남자 1 : 예. 일단은 그렇게 추측되는데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리  
겠습니다.

남자 2 : 구조만 잘 되면 문제없겠네요.

남자 1 : 그렇죠, 그렇죠. 인원이 많이 타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남자 2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1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7분 1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안전행정부 재난상황과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여자 1 : 예. 안행부 재난상황과인데요.

남자 1 : 예, 예.

여자 1 : 예. 목포 여객선 침몰사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남자 1 : 지금 저기... 아까 보고서는 받으셨지요?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1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9분 36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안전행정부 상황실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바쁘는데 죄송합니다. 안행부 상황실인데요. 영상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함장 나가 있는 거요.

남자 1 : 함정 나가 있는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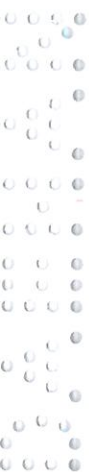
남자 2 : 예, 예.

남자 1 : 현재 100톤만 나가 있거든요.

남자 2 : 아, 예. 나중이라도,

남자 1 : 예. 나중이라도 큰 배 나가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남자 2 : 예, 예.





◆ 녹음 순번 : #1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2분 0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중앙119구조본부

남자 1 : 예.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아, 예. 여기 중앙119구조본부인데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팩스 보내셨다는데 안 와가지고. 529-1119로 보내신 거 맞으신가...  
여보세요?

남자 1 : 잠시만요.

남자 2 : 예.

남자 1 : 중앙소방본부 아십니까, 거기?

남자 2 : 예, 중앙119구조본부.

남자 1 : 그러니까.

남자 2 : 031-529-1119.

남자 1 : 아니, 아니요. 우리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누르게 되면 그리로 가게 돼  
있거든요.

남자 2 : 아, 예.

남자 1 : 소방방재청 상황실 아니에요?

남자 2 : 아, 방재청 상황실은 아니고요. 중앙119구조본부인데. 방재청 상황실은 따로 있고  
요.

남자 1 : 거기... 예. 우리가 소방방재청으로 보냈는데?

남자 2 : 아, 방재청 상황실로 보냈어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남자 1 : 바빠가지고요.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죄송한데 문의를 하셔야  
가지고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지금 지휘부들 와갖고 저희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그렇게 문의 좀 해 주세요.

남자 2 :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1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5분 2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한국해운조합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해운조합 \*\* 경위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상황이... 무전조차 안 돼가지고.

남자 1 : 아, 그래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아, 현재 아까 침수가 조금 넘어서 이제 침몰 우려가 있어가지고 신고 들어와갖고 현재 지금 100톤이, 우리 경비정 100톤이 현장 제일 먼저 도착했고, 헬기 2대가 지금 도착해서 지금 일부 지금 구조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자 2 : 아, 지금 구조 중으로?

남자 1 : 예, 예.

남자 2 : 구조 중으로요.

남자 1 : 현장세력도 지금 10 몇 척이 지금 그쪽으로 거의 다 와갑니다.

남자 2 : 10여 척이 경비정이 도착하고,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그 외에는 나온 건 없네요?

남자 1 :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유, 나 정신이 없거든요.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남자 1 : 여기까지만요.

남자 2 :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1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3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경북소방본부 상황실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아, 예, 고생하십니다. 여기 경북소방본부 상황실에,

남자 1 : 어디요?

남자 2 : 경북소방본부, 경북이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아, 저희 헬기도 혹시 그쪽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  
나 좌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남자 1 : 위치가요. 경위도로 불러드릴게요.

남자 2 : 예.

남자 1 : 34도 11분, 125도 56분.

남자 2 : 125도 56분.

남자 1 : 예, 예.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래요.

남자 2 : 병풍도,

남자 1 : 북방 1.8해리.

남자 2 : 북방,

남자 1 : 1.8해리.

남자 2 : 1.8해리고, 아까 좌표 좀 다시 확인할게요. 34도 11분.

남자 1 : 예. 125도 56분.

남자 2 : 그리고 125도 56분.



남자 1 : 예.

남자 2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녹음 순번 : #1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7분 5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목포서 상황실장

남자 2 : 감사합니다. 목포 상황실장입니다.

남자 1 : 예, 예, 실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여기 본청 부실장인데요.

남자 1 :

남자 2 : 산림청 헬기가 2대가 거기로 간다 그러거든요.

남자 2 :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아마 그 전화가 올 거예요. 그렇게 \*\* 조치를 해 주십시오.

남자 2 : 알겠습니다.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1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1분 3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남자 1 :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치안정책관이에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지금 현장에 도착해 있는 함정하고 헬기하고 장비 한번 좀 불러줄래요?

남자 1 : 장비,

남자 2 : \*\* 올라온 거. 아까 16척이라는데 그거 아닌 것 같네.

남자 1 : 어떤 거 말입니까?

남자 2 : 함정하고 그 저기 해군하고 도착한 거, 현장.

남자 1 : 아, 그래요? 지금 관련 2보가 지금 나가는데요.

남자 2 : 예. 불러줄래요?

남자 1 : 지금... 잠깐만요.

남자 2 : 예.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1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7분 5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남자 2 : 예. 치안정책관인데요. 전화를 거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승객들 저기 다 뛰어내렸는지 이런 부분 좀 나오나요?

남자 1 : 아...

남자 2 : 이거 뭐 지금 현장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도 답답하니까 나한테로 자꾸 연락이 오는데.

남자 1 : 예, 예. 잠시만요.

남자 2 : 예.

남자 1 : 이게 지금, 아이고, 이게...

남자 2 : 일선에 지금 목포서가 하지요, 목포서?

남자 1 : 예, 예.

남자 2 : 목포서가 지금 제일 먼저 취합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남자 1 : 목포서가 제일 빠르죠.

남자 2 : 그런데 이제 지방청 거쳐서 올라오죠?

남자 1 : 그렇죠.

남자 2 : 그러면 지금 학생이 몇 명 탄지는 아는가요?

남자 1 : 아휴~ 그거,

남자 2 : 그것도 안 되죠?

남자 1 : 그거까지는 전혀 지금...

남자 2 : 목포서에 누구라야 이게 답이 나오지, 이거?

남자 1 : 목포도 지금 바쁠 건데요, 거기도.

남자 2 : 목포도 바쁘죠?

남자 1 : 예. 지금 올라오는 거는 우리 이메이트가 있거든요.

남자 2 : 그러니까.

남자 1 : 현장상황이 목포 상황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남자 2 : 예. 우리도 이메이트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 1 : 이메이트요?

남자 2 : 예. 여기 안 돼,

남자 1 : 안 될 건데요.

남자 2 : 여기 이메이트 안 돼 있으려나?

남자 1 : 예.

남자 2 : 아~ 또 그러네. 답답하네.

남자 1 : 지금 전체는 지금 90% 이상 침몰된 상태입니다.

남자 2 : 그러면,

남자 1 : 지금 뭐...

남자 2 : 그러면 저기 뭐냐, 승객들은 다 뛰어내렸는지 그게 궁금하네. 다 바다로 이선했는지.

남자 1 : 예.

남자 2 : 그것만 좀 확인해 줄래요?

남자 1 :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2 :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2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4분 21초

◆ 대 화 자 : 회전익항공대 / 남자 2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회전익항공대,

남자 2 : 어, 병석아, 나야.

남자 1 : 응.

남자 2 : 응. 거기 구조대 몇 명 탔지?

남자 1 : 구조사가 지금 특공대 4명하고 항공구조사 포함해가지고 7명하고 응급구조사까지 해가지고 가거든. 지금 다,

남자 2 : 항공구조 7명?

남자 1 : 응.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

남자 2 : 그래?

남자 1 : 응.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거든. 대충 그 정도로다가 지시하고서 준비해가지고 가는 건데, 카톡으로다 받아가지고 저기 하기로 했어.

남자 2 : 그래?

남자 1 : 응.

남자 2 : 그러면 병석아, 인원 확인되는 대로,

남자 1 : 응, 연락 줄게, 연락 줄게.

남자 2 : 일단 한 8명 정도, 일단은 8명 정도는 알고 있다 이거지?

남자 1 : 응, 응.

남자 2 : 추가로 확인, 탄 사람까지 확인하고.

남자 1 : 응, 응.

남자 2 : 그거 나한테 문자 좀 날려줘.

남자 1 : 오케이.

남자 2 : 응.

남자 1 : 전화로 바로 줄게.

남자 2 : 응.

남자 1 : 응, 수고.



◆ 녹음 순번 : #2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6분 39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 본청 항공과 장영철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수고 많습니다. 소방청 상황실의 박나현입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아까 경위분, 장영철 경위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남자 1 : 지금 여기 안 계시네. 잠깐,

남자 2 : 아, 그렇습니까?

남자 1 : 예.

남자 2 : 지금 제가 간단하게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남자 1 : 아휴, 저한테... 제가요, 바빠가지고.

남자 2 : 아, 그럼 누구 좀...

남자 1 : 뭘 바꿔줘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남자 2 : 예, 좀 바꿔서...

남자 1 :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남자 2 : 예. 이해합니다.

남자 1 :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남자 2 : 예, 예.

장영철 : 예. 장영철입니다.

남자 2 : 예. 장 경위님, 아까 통화했던 박나현입니다.

장영철 : 아, 중앙119요?





남자 2 : 예, 예.

장영철 : 아, 예.

남자 2 : 예. 저희 주파수 내역 VHF 123.1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파했고요.

장영철 : 예.

남자 2 : 일단은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했더니 우리 출동대 집결지를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팽목항에서 내렸다가 거기 지휘 받고 우리 그 주파수,

장영철 : 아, 제가 그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남자 2 : 아, 그렇습니까?

장영철 : 예.

남자 2 : 예. 장 경위님,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 팩스 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영철 : 아, 저는 여기 상황실 요원이 아니고요. 항공 지원을 잠깐 나와가지고.

남자 2 :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나 구조가 된 것인지, 몇 명 중에서.

장영철 : 아, 잠깐만요.

남자 2 : 예.

장영철 :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른 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남자 2 : 예, 예. 죄송합니다.

장영철 : 예, 예.

남자 1 : 예.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아, 예. 박나현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일단 저희들도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현재 승



객이 471명 탔다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몇 명이 구조가 된 상황인지요?

남자 1 : 현재 공식집계로는 배에서, 우리 경비정에서 52명, 그다음에 우리 헬기에서 18명 해가지고.

남자 2 : 예. 18명이요?

남자 1 : 18명, 52명.

남자 2 :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거 팩스로 좀 하나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 1 : 그 저기 소방방재청 상황실 아니예요? 아, 나 헛갈려가지고.

남자 2 : 아, 거기로 했는데 거기로 보내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소속기관 중앙 119구조본부입니다. 저희들이 육상탐하고 헬기가 급파된 바람에 저희들도 그 상황을 알아야 계속 무전으로 가르쳐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해경 진행상황을.

남자 1 : 소방방재청하고 서로 어떻게 연락이 안 되나요?

남자 2 : 안 되네요. 거기 지금 완전히 비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렇지 않아도 팩스 들어왔는데 우리 쪽으로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남자 1 : 아~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더 죽습니다, 지금. 팩스가 몇 번이에요?

남자 2 : 예. 죄송합니다. 031-529-1119.

남자 1 : 032.

남자 2 : 031-529-1119.

남자 1 : 거기가 어디라고요?

남자 2 : 중앙119구조본부입니다.

남자 1 : 중앙119구조본부.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아니, 난 소방방재청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구나. 좀 많이 복잡하네요, 거기도.

남자 2 : 예. 아이고,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남자 1 : 알겠습니다. 이 상황보고서 거기로 보내드릴게요.

남자 2 : 예, 예, 감사합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22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8분 1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장관님 도착했어요?

남자 1 : 여보세요?

남자 2 : 예. 장관님,

남자 1 : 아, 예, 지금 오신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남자 2 : 아, 거의 다 오신 모양이네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배의 상태가 지금 저기,

남자 1 : 거의 90% 지금 침몰 상태이고요.

남자 2 : 그림에 보이죠? 뜨죠, 지금? 그림에 안 나옵니까?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영상으로?

남자 1 : 예, 예, 그거는 안 나옵니다.

남자 2 : 아, 영상으로는 안 보인다고요?

남자 1 : 예.

남자 2 : 아, 100톤은 또 그게 없는가 보네요?

남자 1 : 그게 없습니다. ENG카메라가 없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 지금 278이 있거든요.

근데 278은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 좀 그러네요.

남자 2 : 아무 큰 배가 없네, 현장에.

남자 1 : 예, 현장에 없습니다. 거기 큰 배가 경비구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자 2 : 답답하겠네.

남자 1 : 조금 그렇습니다. 큰 배가 있으면 좋은데.

남자 2 : 아니, 여기 연합뉴스에는 자꾸 그림이 뒤집어져서 나오니까 선미 바닥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그림을 보여주네, 자꾸 여기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남자 1 : 예.

남자 2 : 전복이에요, 선수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남자 1 : 지금 선수 부분만 보이는 거 같은데요.

남자 2 : 선수 부분만요?

남자 1 :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남자 2 : 그러니까.

남자 1 : 잠깐만요.

남자 2 : 예.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23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4분 1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해양수산부 상황실

남자 1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해수부 상황실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승선원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운조합은 471명이라고 그러는데.

남자 1 : 예.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총 477명  
이고요.

남자 2 : 477명이고,

남자 1 : 예. 학생이 325명.

남자 2 : 25명.

남자 1 : 교사 15명.

남자 2 : 교사 15명.

남자 1 : 예. 일반인 108명.

남자 2 : 108명, 일반.

남자 1 : 그다음에 선원 29명.

남자 2 : 선원 19명입니까?

남자 1 : 29명이요, 29명.

남자 2 : 29명?

남자 1 : 그거 합쳐서 477명이요.

남자 2 : 예?





남자 1 : 합쳐서 477명이라고요.

남자 2 : 아~ 승무원까지 다 포함한 게 477명이네요?

남자 1 : 그렇죠.

남자 2 : 아~ 그러면 별도가 아니네요?

남자 1 : 학생 325, 교사 15, 일반 108, 선원 29 해서 총 477.

남자 2 : 예. 보고서 좀 다시 바로 부탁드립니다.

남자 1 : 이거 업그레이드 해갖고 보내드릴게요.

남자 2 : 예.

남자 1 : 예.



◆ 녹음 순번 : #24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7분 18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동해서 상황담당관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 상황담당관입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구조대 총원 다 보내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요.

남자 1 :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그게?

남자 2 : 본청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남자 1 : 구조대요?

남자 2 : 예, 예. 122구조대를 여수로다 다 보내라고.

남자 1 : 어디? 목포요?

남자 2 : 예, 목포로, 목포로.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총원 다 보내는 게 맞습니까?

남자 1 : 글썄,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어느 분이 했나 모르겠는데요. 수색구조...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25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9분 2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속초서 상황실 실장

남자 1 : 예.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속초 실장입니다.

남자 1 : 예.

남자 2 : 예, 예.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122구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출동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도 실종자 수색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총원 다 보내야 됩니까?

남자 1 :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수색구조과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전화 끊김)



◆ 녹음 순번 : #26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9분 23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이거 뭐 388명 전원 구조됐다고 하는데,

남자 1 : 그거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 2 : 이거 아직 안 나온 거지?

남자 1 : 예, 예. 오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항 없습니다.

남자 2 : 우린 뭐 안 나오는가 보네.

남자 1 : 예.

남자 2 : 아, 왜 이러지?

남자 1 : 장관님 오셔가지고요.

남자 2 : 오케이.

남자 1 : 예, 예.



◆ 녹음 순번 : #27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3분 1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동해서 상황실장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수고하십니다. 동해청 상황실장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혹시 지금 저희 특공대가 출발했는데, 지금 YTN의 보도 뭐죠, 그건?

남자 1 : 아, 그건 오보도예요, 오보도.

남자 2 : 오보도죠?

남자 1 : 예.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 녹음 순번 : #28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9분 20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남자 2 : 예. 감사합니다. 상황실 박동순 경사입니다.

남자 1 : 예, 예, 161명 구조했다면서요?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예. 161명 구조했다면서요?

남자 2 : 그런데 지금 또 목포서에서는 정정해서 148명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남자 1 : 아니,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국장님이 다시 확인해 보라는데. 아닙니까?

남자 2 : 148명이라 그러네요.

남자 1 : 어디서요? 171명,

남자 2 : 목포서에서. 목포서에서요. (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 예. 방금 전에 그랬다는데  
요. 148명으로. 아까 161명이라 했는데요.

남자 1 : 아까 161명에서 148명으로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전문으로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십니다, 국장님이요.

남자 2 : 예.

남자 1 : 그거 좀... 이게 참 큰일이네, 왔다 갔다 해서.

남자 2 : 그러니까요.

남자 1 : 아... 그러면 아니네요, 161명은?

남자 2 : 예.

남자 1 : 148명이라고요, 현재?

남자 2 : 예, 예.

남자 1 : 그거 어디, 목포 상황실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남자 2 : 한 10분 전에.

남자 1 : 10분 전예요?

남자 2 : 예.

남자 1 : 아,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외전파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것보다도 국장님이 지금 노발대발하시니까 죽겠습니다, 지금.

남자 2 : 예.

남자 1 : 왜냐면 인원이 자꾸 틀려져버리니까.

남자 2 : 예.

남자 1 : 다시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 녹음 순번 : #29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0분 01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치안정책관 / 본청 상황담당관 임근조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실장님, 치안정책관인데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단원고등학교에서 다 구조했다고 해경에서 연락 받았다고 그러는데?

남자 1 : 글썄요. 우리 지금 본청에서는 지금...

남자 2 : 어디서 연락 간 거지? 시간까지 적어주던데? 11시 12분 해경. 누군지 한번 물어  
봐요, 해경 어딘지.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 1 :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전화한 분이 알 수가 없는데요.

남자 2 : 아니, 그런데 단원고는 왜 다 구조했다고 자기들이 받아갖고 밖으로 전파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해경에서 연락했다고.

남자 1 : 여기 본청에서는요, 어떻게 지금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예 자체를  
그 상황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남자 2 :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되는데.

남자 1 : 그러니까요.

남자 2 : 이상하네.

남자 1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여기서, 본청에서는요.

남자 2 : 지금 아직 나온 건 없죠?

남자 1 : 예, 예, 없습니다. 현재 지금 162명 구조한 걸로 지금 잠정 집계됐고요, 11시 20  
분에. 계속 수색 중입니다.

남자 2 :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장관님 나가셨어요?

남자 1 : 지금 장관님 방금 한 10분 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남자 2 : 오케이.

남자 1 : 예, 예.

남자 2 : 국장님도 계세요?

남자 1 : 다 계십니다.

남자 2 : 통화 가능합니까?

남자 1 : 국장님이요?

남자 2 : 예, 예.

남자 1 : 잠깐만요. 국장님!

남자 2 : 정신이 없네요.

남자 1 : 잠깐만요. 국장님!

안 되겠네요.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남자 2 : 국장님 전화... 어디로 가셨어요? 방으로?

남자 1 : 위기관리실... 위기관리회의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아, 전화를 지금 못 받을... 죄송합니다.

남자 2 : 상황담당관이나 누구 없어요?

남자 1 : 잠깐만요. 담당관님도 지금 통화중...

남자 2 : 경비계장, 경비과장.

남자 1 : 경비과장도 위기관리실 들어가셨습니다.

남자 2 : 차장님 거기 계시네요?

남자 1 : 차장님 지금 회의 주재 중이시고요.

남자 2 : 아니, 경기교육청에 대책반이 있어요.

남자 1 : 경기교육청에요?

남자 2 : 예. 대책반이 있는데, 장학사가 하는 얘기가 해경에서 단원고로 연락 왔다고 그렇게 해 갖고 연락을 주네요, 보니까. 경기교육청에 상황대책반이 031-820-0604.

남자 1 : 031.

남자 2 : 820.

남자 1 : 820이요?

남자 2 : 예. 0604.

남자 1 : 0604.

남자 2 : 4, 공넷.

남자 1 : 0604.

남자 2 : 예.

남자 1 : 지금 본청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없고,

남자 2 :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남자 1 : 교육청 대책팀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연락처도 우리는 모르고.

남자 2 : 그래서 내가,

남자 1 : 이게 지금 본청에서 나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남자 2 :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해경 쪽 얘기하니까 나는 분명히 나간 게 없는데.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참고로 알고 있고.

남자 1 : 예.

남자 2 : 혹시 다른 데서 오면 그렇게 얘기,



남자 1 : 지금 담당관님 통화 가능,

남자 2 : 예, 바꿔주세요.

임근조 : 예, 접니다.

남자 2 : 예. 고생합니다.

임근조 : 예, 예.

남자 2 : 지금 경기교육청 대책반에서 학생들 다 구조했다고,

임근조 : 아니, 저희 쪽에서 나간 거 아닌데요.

남자 2 :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해경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내가 해경 어딘지 물어보  
라 했는데.

임근조 : 예. 지금 저희 쪽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자 2 : 그다음에 장관님은 지금 김포공항 가신 거죠?

임근조 : 예, 예.

남자 2 : 김포공항 들어서 챌린저 타고,

임근조 : 챌린저 타고서 무안,

남자 2 : 그다음에 무안 가서 헬기 타고 진도까지요.

임근조 : 예, 예.

남자 2 :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임근조 : 1시간 반... 예, 약 그 정도. 그리고 안행부장관은 아산 그 학교에서, 경찰교육원  
에서 이주성 원장하고 같이 해서 일단 현장으로 헬기, 육경 헬기 가지고 들고서  
그리고 제주로 갈 겁니다, 서해청으로.

남자 2 : 서해청이요?

임근조 : 예, 예.

남자 2 : 안행부 장관은 뭐 타고 갑니까, 여기서?

임근조 : 육경 헬기요.

남자 2 : 그게 거기까지 가집니까?

임근조 : 예. 육경 헬기가 현장 돌고서 서해청으로 갈 겁니다.

남자 2 : 그러면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 모양이죠?

임근조 : 아니, 아니요, 저기에서.

남자 2 : 어디서요?

임근조 : 아산에서, 아산 교육원에서.

남자 2 : 그러면 아산까지,

임근조 : 아산교육원에 있어요, 지금 안행부장관이.

남자 2 : 아~ 아산 교육원에서?

임근조 : 예, 예.

남자 2 :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나온 건 없죠?

임근조 : 지금 현재 162명 구조한 거로,

남자 2 : 예. 그것까지 나왔고, 청장님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고?

임근조 : 현장 지금 이동하셨죠. 저기 뭐야,

남자 2 : 먼저 가셨죠, 청장님이? 청장님 밑에가 누가 있나...

임근조 : 아직 지금 파악 못 했네요.

남자 2 : 음... 그러면 공항까지 가려면 2시간 잡아야 되겠네요, 장관님은.

임근조 : 누구요?

남자 2 : 공항 이동까지 해서 현장 가려면.

임근조 : 그러시죠, 예.

남자 2 : 예, 알겠습니다.

임근조 : 예.







◆ 녹음 순번 : #30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7분 14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인천 경비과장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수고 많습니다. 인천 경비과장인데요.

남자 1 : 예.

남자 2 : 우리 특공대 지금 준비됐고 비행기로 이동해도 되겠어요?

남자 1 : 아, 인천 특공대요?

남자 2 : 예. 15명 정도는 우리 챌린저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무안으로.

남자 1 :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2 : 아, 그걸 빨리 지시를 해 주면 우리가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차량으로 가면 늦어지잖아.

남자 1 : 예.

남자 2 : 그 여부를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 녹음 순번 : #31

◆ 녹음 일자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8분 47초

◆ 대 화 자 : 본청 상황실 부실장 / 해군작전사령부 파견 직원

남자 1 : 감사합니다. 상황실 부실장입니다.

남자 2 : 예, 부실장님, 고생합니다. 해작사 나와 있는 박종도 경감입니다.

남자 1 : 예, 예.

남자 2 : 예. 그 재난대응계 신경일 경감 거기 와 있나요?

남자 1 : 아...

남자 2 : 아니, 여기 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부실장님한테.

남자 1 : 예.

남자 2 : 우리 지금 현재 여객선 관련해서 해군에는 구조함에서 공기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는 게 있는데,

남자 1 : 예, 예, \*\*

남자 2 : 우리도 그런 장비가 있나요, 지금 함정에?

남자 1 :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2 :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것만 있으면 연명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남자 1 : 예.

남자 2 : 그러면 신 경감한테 물어보고 싶으니까 신 경감을 좀 바꿔주세요.

남자 1 :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신 경감님이 어디 가셨나?

남자 2 : 그러면 재난대응계 다른,

남자 1 : 거기로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남자 2 : 예?

남자 1 : 그쪽으로 전화 한번 해 보세요.

남자 2 : 그 방에 전부 다 상황실로 갔다고 아무도 없어요.

남자 1 : 여기도 지금 안 보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자 2 : 정신이 없어요? 누구 편한 사람 한 사람 노는 사람 한 사람,

남자 1 : 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남자 2 :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남자 1 : 잠깐... 어디 가셨지?

남자 2 : 예, 그래, 알았어요.

남자 1 : 예.

